

반값 소비 촉진으로 경제 살린다

강진군,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서울서 선포식 성황 서민경제 위기 돌파 지역경제 활성화 '신의 한수'



반값 강진 관광 선포식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성공을 기원하며 하트 포즈를 취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원수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장, (사)대한민국가족지킴이 오서진 이사장, NH농협캐피탈 서울원 대표, 차용수 강진군 재경향우회장, 강진원 강진군수, 유홍준 前 문화재청장,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강진군 홍보대사 가수 문희옥, 한국여행작가협회 임인학 회장, 농협중앙회 전남본부 박종택 본부장 순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을 겪으며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4%를 기록한 가운데, 가중되는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진군의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선포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강진군은 26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2024 강진 관광의 해' 성공을 기원하는 선포식을 가졌다.

경제 위기로 서민층이 지갑을 닫을 때마다 각종 기업은 물론 전통시장에서도 반값 할인 이벤트를 벌여왔지만, 소비한 여행경비의 50%

를 최대 20만 원까지 돌려주는 반값 관광 정책을 지자체에서 역점 시책으로 선포하고 연중 운영하는 것은 강진군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번 선포식에는 재경강진군향우회, 언론사, 관광협회, 여행협회, 한국관광공사, 여행사, 여행작가, SNS 관계자, 서울·경기 맘카페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진군의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선포식은 경기 불황과 고물가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동시에 지역의 소비 촉진으로 연결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1석 2조

의 포석으로, 크게는 국가경제 위기 돌파에도 힘을 보탠다는 전략이다.

특히 '남도답사 1번지'를 처음으로 제시한 전 문화재청장인 유홍준 교수가 20분에 걸쳐 '강진 관광'과 관련해 자세한 해설을 더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어 강진군홍보대사인 가수 문희옥과 강진 출신의 국악가수 김준수, 강진 오감통 뮤지션인 코지제즈오피스의 축하 공연이 펼쳐지며 행사장 분위기는 달아올랐다.

강진군은 그랜드볼룸 밖 로비에서 2024 반값 가족여행 강진 오프라인 사전신청·접수와 함께 황칠차, 동백발효식초, 하멜맥주 시음회, 강진 농·특산물 전시, 강진 리빙룸 포토존을 설치해, 강진 농특산물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반값 강진 관광은 2인 이상의 가족이 강진으로 여행을 오면 소비 금액의 50%, 최대 20만원 까지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으로, 반드시 사전 접수·신청을 통해야만 혜택이 가능하다.

유홍준 前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도 일상에서 즐길 때 의미 있다"며 "강진 뿐 아니라, 주변 지역과 함께 남도답사 1번지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반값 강진 관광의 흥행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서울에서 반값 관광의 해 선포식을 하는 강진군의 절박함에 대해 이해하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수도권의 향우회, 여행, 관광업계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 피해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서민층으로, 국가경제 소비 시책의 연장선상에서 강진군의 반값 관광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도 살리고 소비 촉진으로 국가 경제도 살릴 수 있도록 많은 가족들의 강진 방문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군,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대비 세무 교육

세무업무 담당 공무원 20여 명 대상

장흥군은 25일 장흥국민체육센터 정보화교육장에서 세무업무 담당 공무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은, 현재 자치단체별로 분산 운영중인 현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전국 통합형 클라우드 체계로 전환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 반영한 시스템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월 13일 시스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시스템은, 지방세 제도의 발전과 함께 꾸준히 기능 보강을 해왔으나, 노후화에 따른 잦은 장애, 수작업 세정업무 처리로 인한 비효율 등 제한적인 요인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같은 이유로 2019년부터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추진돼 왔다.

지능형 지방세입 정보체계 구현을 위해 지방세·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2월 13일 개통됨에 따라 모든 납부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다.

중단 기간은 설 연휴를 포함한 오는 2월 8일 저녁 6시부터 12일까지이며, 시스템 이관작업에 따른 모든 지방세·세외수입 납부서비스가 중단된다.

이번 교육은 분청과 읍·면 세무업무 담당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세정운영에 차질 없도록 대처하기 위해 목표를 두고 있다.

오병찬 장흥군 재무과장은 "새로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사전 교육을 통해 군민의 세무행정 서비스 향상에 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 초·중·고 국제학교 설립 가능해졌다

해남군이 적극 추진해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이 2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솔라시도 기업도시내에 초·중·고 국제학교의 설립이 가능해졌다.

명현관 군수는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주여건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교육기관 설립 요건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건의한 결과 이번 법률 개정의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국제학교가 설립되면 기업도시내 임직원 등 가족단위 인구의 유입과 정주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산이면 구성리 일원 2,089만㎡(632만평) 부지에 오는 2030년까지

사업비 1조 4,400억을 투입해 인구 3만6,600명의 자족도시를 건설하게 된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주거지역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복합문화공간인 산이정원이 올해 4월 개관하고 추가로 1만 4,600세대의 주택과 고급 아파트 등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기업도시내 종합병원 및 복합의료타운 건립 투자협약도 성사된 가운데 국제학교 설립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족형 첨단도시를 지향하는 기업도시 정주환경에 구체적인 밑그림이 완성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최근 투자유치가 잇따르고 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에 정주 기반



시설인 교육기관이 설립되면 명실상부 명품 자족도시로서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 정부 공모와도 연계해 국제학교 유치와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진도아리랑물, 설맞이 20% 할인 행사 진행

울금·전복·곰창김 등 320여개 우수 농수특산물 판매...2월 12일까지

진도군이 지역 온라인 쇼핑몰 진도아리랑물 설맞이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진도아리랑물에서 판매되는 전품목을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다. 또 회원가입시 바로 사용 가능한 2,000포인트 적립 행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진도아리랑물은 진도군 지역 온라인 쇼핑몰로 60여개 업체가 입점돼 있고 쌀, 울금, 구기자 등의 농산물과 활전복, 곰창김, 돌미역 등의 다양한 수산물, 한우, 진도홍주 등 320여개 진도의 우수한 청정 농수산물을 판매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할인 행사를 통해 지역의 농어가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맛 좋고 영양 많은 진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